우암학원 창학67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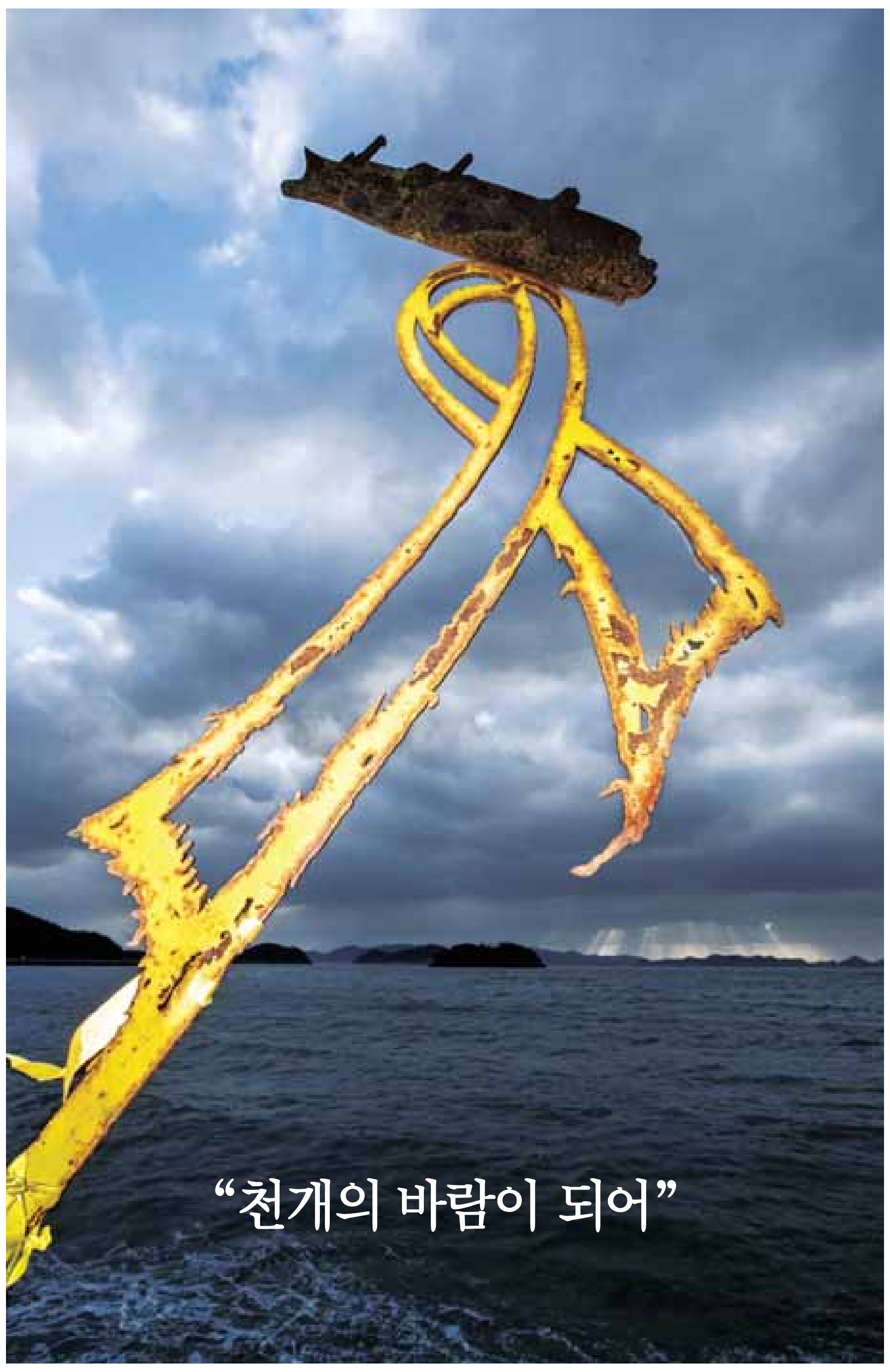
光州日報

RADIANT XCROSSOVER NEW GENERATION
RX
빛나하라, 감동하라
www.hyosunglexus.com
LEXUS
광주전시장 080-384-7733
전주전시장 080-263-7743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403호 1판 (음력 12월 2일) 2016년 12월 30일 금요일

올해도 저무는데 세월호 진실 아직 바닷속에

“새해엔 엄마 품으로 돌아오렴” 애타는 기다림



29일 진도 팽목항 방파제에 설치된 노란 리본 모양의 철제 구조물 끝에 세월호 모형의 배가 녹슨 채 매달려 있다. 참사 발생 3년째인 2016년이 저물도록 세월호 침몰 원인 등 의혹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팽목항=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진도 팽목항 990일의 절규

미수습자 9명 가족들
“이제 아이들 만날 수 있겠죠”
촛불민심에 국민 관심 높아져
인양 감시…진실규명 기대

팽목항 앞바다로 붉은 해가 저문다. 빨간 노을빛에 물든 방파제 난간에는 노란 깃발이 매달려 2년 전 그때처럼 세차게 흔들린다.

저 바다 깊은 곳에는 아직도 9명이 남아 있다. 안산 단원고 학생 조은화·허다윤 양, 남현철·박영인 군 양승진·고창석 선생님 그리고 일반인 탑승객 권재근씨와 아들 혁규군.

2년 전 봄 세월호와 함께 50m 아래 바닷속에 가라앉은 이들은 그해 봄에도, 해가 바뀐 2015년에도, 또다시 찾아 온 새해를 사흘 남겨둔 2016년 12월 29일에도 그대로다. 그들이 침몰한 세월호에 여태 머물러 있는지, 흘러가는 물에 떠내려가고 말았는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다.

그들이 나올 생각을 않는 것인지, 그들을 꺼내고 싶어하지 않는 누군가가 훼방을 놓는 것인지 역시 알 수가 없다. 그날의 진실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세월호를 뭍으로 인양하는데 부담을 갖는 세력의 짓인지도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

그래도 엄마, 아빠는 기다린다. 팽목항 방파제에서 100m 떨어진 공터에 정부가 가져다 둔 조그만 컨테이너가 그들의 집이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살아남은 다른 자식들의 미래를 잠시 제쳐놓고, 엄마와 아빠는 이곳 팽목항을 지킨다.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이지만 결코 떠나지 못한다. 내 새끼가 추운 바다 아래서 덜덜 떨며 엄마, 아빠만 기다리다가 뭍으로 올라오는데, 그때 처음 보는 사람이 당연히 엄마와 아빠여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단원고 은화양 아빠 조남성(54)씨는 “이제 선체를 받치는 리프팅 빔을 설치했고 작업 공정률도 75%는 됐다고 한다. 올 봄에는 우리 은화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에 부풀었다.

은화 아빠, 엄마의 눈에서 눈물은 마른지는 이미 오래다. 다윤이 아빠 허흥환(54)씨와 엄마 박은미(46)씨도, 동생 재근씨와 조카 혁규를 기다리는 권오복(62)시 모두 눈물이 마르기는 마찬가지다. 태어나 죽고 다시 태어나고 또 죽을 동안 흘려야할 눈물을 세월호가 가라앉은 첫 해에 모두 쏟아내 버린 엄마, 아빠들. 그들 기다림의 끝이 정부가 말한 대로 ‘새 봄’이 될 것인지 역시 알 수가 없다.

그래서일까. 팽목항의 엄마, 아빠는 더는 끼니를 거르지 않고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꼭 챙긴다. 전국에서 잊지 않고 보내온 쌀로 밥을 짓고, 경상도 산골에서 보내온 사과를 먹고, 제주도에서 부쳐준 귤도 챙겨 먹는다.

혼자 먹기 미안했는지 엄마, 아빠는 바다로 쭉 뻗은 방파제 끝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과와 요구르트, 과자 따위를 놔뒀다. 진도 농협에서 지난 18일 한 알에 3000원씩 주고 산 사과, 유통기한이 내년 1월 7일까지인 요구르트 그리고 먼지 하나 붙지 않은 과자봉지다.

박근혜·최순실이 저지른 국정농단 사태, 대통령의 7시간 의혹, 밤에만 이뤄지는 인양 작업 의혹, 네티즌 수사대 자로가 다시 꺼내든 ‘세월호 외부 충격 침몰설’ 등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 오로지 저 시커먼 바다에서 2년이 넘도록 나오지 못하는 내 새끼가 내 품으로 돌아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그들이 기도하는 것도 소박하다. 내 아이가 어떻게 죽게 됐는지, 왜 여태 차가운 바다에 갇혀 지내야하는지, 어서 빨리 내 아이를 꺼내달라고 울부짖지 않는다. 팽목항의 엄마, 아빠들은 그저 물결이 잔잔해져 오늘 작업이 좀 속도가 나기를, 작업하는 잠수사들이 다치지 않기를, 아이들과 함께 가라앉은 세월호가 온전히 인양되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세월호를 품은 맹골수로가 훤히 내다보이는 섬 ‘동거차도’에서도 엄마, 아빠는 기다린다. 아이들의 시신을 되찾은 동거차도의 엄마, 아빠들이 비닐과 나뭇가지로 엮어 만든 움막 안에서 기다리는 것은 ‘그날의 진실’이다.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내 자식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매번 과적을 일삼고 화물 고박을 부실하게 했던 세월호가 왜 하필 그날 가라앉았는지, 배가 완전히 기울기 전 충분히 승객들을 대피시킬 수 있었는데도 왜 정부와 선원들은 기다리라고만 했는지 엄마, 아빠는 지금도 알지 못한다. 안산에 집이 있는 엄마, 아빠들이 동거차도를 찾아 1주일씩 교대로 움막을 지키는 이유다.

생전 처음 다뤄보는 망원렌즈를 이용해 인양작업 과정을 사진 찍고, 작업 상황을 꼼꼼히 기록한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했으니 햇수로는 곧 3년이 된다. 끝모를 기다림의 연속이지만 엄마, 아빠들은 팽목항 분향소의 방명록을 보며 힘을 낸다. 방명록엔 “이제껏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끝까지 함께하고 진실 규명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는 내용의 글이 많았다.

엄마, 아빠들은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뉴스가 신문과 방송에 도배된 이후 이런 글이 더욱 많아졌다고 했다. 엄마, 아빠들은 “잘하면 새 해엔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국민 여러분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세월호 유족들은 31일 동거차도로 건너가 미수습자와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염원하는 새해맞이 행사와 희생자 추모 차례를 지낸다.

/팽목항=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내수경기 추락 막아라” 정부 내년 20조 투입

2017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가 내년 내수 경기 활성화에 전력하기로 했다. 저출산 해결의 시발점으로 내년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커플이 결혼에 성공하면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줘 저출산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관련기사 10·17면〉

이와함께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2.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지출 13조원, 정책금융 8조원 등 20조원 이상을 경기보강에 투입한다.

정부는 내년 경기와 리스크 관리, 민생안정,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3대 과제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어느 때보다 엄중한 경제여건에 직면해 있어 경제팀은 경제의 기본을 충실히 하는 데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유가와 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제약되고 최근 들어 경제 심리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며 “가계부채와 부실기업, 부동산시장 등 내부 취약요인이 글로벌 불안요인과 맞물릴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처럼 재정과 금융 등 가용재원을 모두 끌어다 쓴다는 방침이지만 경기 위축을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내년 우리 경제가 2% 성장도 쉽지 않다며 조기 추경 편성론마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성기자 bigkim@·연합뉴스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승용·정책위의장 조배숙 선출

국민의당 원내대표에 4선의 주승용(여수 을·사진) 의원이 선출됐다. 〈관련기사 3면〉

주승용 신임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에서 35표 가운데 절반이 넘는 18표를 먼저 득표해 당선됐다. 국민의당은 18표를 먼저 득표한 후보자가 나올 경우 개표를 중단키로 해 전체 득표수는 발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책위의장은 주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로 나선 4선의 조배숙(전북 익산) 의원이 당선됐다. 신임 김 원내대표와 권 정책위의장의 임기는 당헌·당규에 따라 내년 5월까지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내달 15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출마하기 위해 이날 사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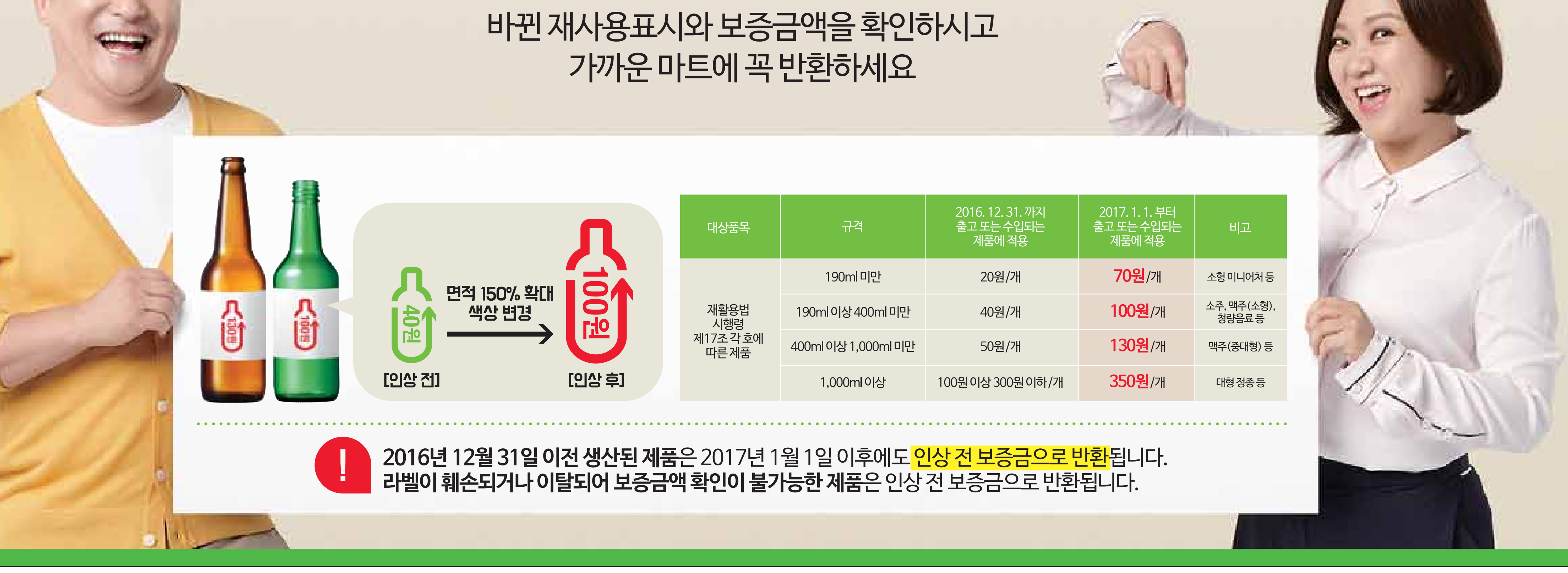
호남 중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주 원내대표는 조기 대선 정국에서 제3지대 합종연횡과 연립정부 구성 등 국민의당 진로 설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AI 속수무책…영암마저 뚫렸다 ▶6면

新팔도유람－경기도 겨울정원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빈용기보증금 상담전화 1522-0082
환경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2017년 1월 1일 생산된 제품부터
빈용기 보증금이 인상됩니다
바뀐 재사용표시와 보증금액을 확인하시고
가까운 마트에 꼭 반환하세요


대상품목	규격	2016. 12. 31. 까지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	2017. 1. 1. 부터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	비고
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 각 호에 따른 제품	190ml 미만	20원/개	70원/개	소형 미니어처 등
	190ml 이상 400ml 미만	40원/개	100원/개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400ml 이상 1,000ml 미만	50원/개	130원/개	맥주(중대형) 등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350원/개	대형 정종 등

! 2016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제품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도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라벨이 훼손되거나 이탈되어 보증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은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